월요광장

무엇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말하라

임 몽 택
미네르바 코칭앤컨설팅 대표
전 광주대 경영학과 교수

사람은 각자 다른 조건을 갖고 태어난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다. 만일 자신이 흙수저를 물었다면 이 기막힌 불공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세상의 모든 일을 두 가지로 나누었다. 하나는 건강, 재산, 평판과 같이 자신의 통제권 밖에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판단, 충동, 욕구와 같이 자신의 통제권 안에 있는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행복과 자유를 얻으려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라고 했다. 흙수저를 물었다고 해서 자신이 통제할 수도 없는 타고난 조건만 탓하는 것은 행복과 자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타고난 조건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이후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을 재창조하면 된다. 재창조란 타고난 조건과 서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자신의 관심사, 혹은 자신의 재능이나 강점을 융합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소아시아에서 노예로 태어난 절름발이였지만 고대 그리스 스토아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되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라는 신분, 절름발이가 된 다리 등 비참한 조건들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간주하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반면에 정신, 가치관, 의지 등 자신이 마음대로 계발하고 확장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영역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했다. 그는 노예 생활로 단련된 인내심에 스토아 철학의 논리를 결합했으며 절름발이라는 신체적 고통마저 '다리는 부러져도 의지는 부러지지 않는다'는 철학적 진리를 증명하는 지렛대로 삼았다. 그는 해방되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뒤에도 화려한 삶 대신 검소한 삶을 선택했다. 그리고 로마에서 추방당한 뒤 니코폴리스에 철학 학교를 세웠다. 사람들은 그토록 비참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평온함을 보고 모여들었고 그의 가르침은 훗날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을 집필하는데 깊은 영감을 주었다.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조건에 대한 태도다. 가난이나 신체적 장애 자체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은 수치스러운 것" 혹은 "내가 실패한 것은 불리한 조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태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타고난 조건은 내가 정할 수 없지만 그 조건을 대하는 나의 반응은 온전히 나의 영역이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삶의 주도권을 쥐는 '개인의 주체적 태도'는 단순히 '하면 된다'는 긍정론과는 다르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그 한계가 나라는 존재를 규명하게 놔두지는 않겠다는 치열한 내면의 자존감이다.

2차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포로수용소를 전전하다 홀로코스트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 수용소의 많은 포로들이 굶주림, 고문,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굴복해 짐승처럼 변하거나 삶을 포기했지만,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의 대화를 상상하거나, 수용소의 경험을 강의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 지옥 같은 상황을 이겨냈다. 고통보다는 그 고통을 견뎌낼 '이유'를 선택한 것이다. 그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디어 낼 수 있다"고 말하고 "만약 삶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시련과 죽음에도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는 없다.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이것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흙수저의 삶은 분명 고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들은 역설적으로 부유한 환경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성공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세상을 꿰뚫는 눈은 거친 현장과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면서 더 예리해지고, 숱한 거절과 좌절 속에서 다져진 심리적 맷집은 어떤 위기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모르 파티(Amor Fati),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말한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거나 체념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운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고난 조건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비록 남루할지라도 내 손에 쥐어진 이 삶을 뜨겁게 껴안고 자신을 재창조해야 한다. 타고난 조건은 운명이지만 그 조건의 주인이 될지 노예가 될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수필의 향기

매향(埋香)으로 피어나다

이 중 섭
소설가

지난해 12월부터 가게 폐업 정리에 들어갔다, 한 달 정도 할인행사를 하면 될 거로 생각했는데 조금 더 늘어났다. 새해부터 새로운 첫발을 디디려던 생각은 단지 희망 사항이 되었다. 처음 세일을 시작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몸에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 대상포진. 하지만 쉴 틈이 없었다. 무시했더니 어느 날 사라졌다. 연이어 귀가 윙윙거렸다. 이명인가 싶었지만, 또한 신경 쓰지 않았다. 며칠 지나자 괜찮아졌다. 내 몸과 다르게 마음이 자신들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고 스스로 도망쳤다. 사실 가게 일 외에도 청탁받은 원고가 세 군데나 있어 아플 여유가 없었다.

가게 정리로 한창 바쁠 때 시골 여자 동창들이 찾아왔다. 점심을 먹다 내 얘기가 나와 들렀다고 했다. 한 친구는 낮술을 한잔했는지 얼굴이 발그레했다. 이들은 환갑 넘은 아줌마들이라 콸콸하고 시원해 남자 친구들보다 편했다. 물건을 대충 사더니 금액을 모바일로 이체했다. 나중에 보니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이 나이에 가게를 폐업하는 것을 걱정한 마음 씀씀이였다.

이 친구들 말고도 여러 시골 친구가 도움을 주었다. 꼭 골치 아파할 만한 물건들을 사 갔다. 이곳 수험생들이 필요치 않은 물건들, 예전에는 유행했는데 세월 앞에 무너져 묵혀 있던 물건들을 용케도 알고 챙겨갔다. 그들이 다녀가면 좁았던 가게가 훤하게 넓어졌다. 꼭 흐름이 빠듯하다 싶을 때 나타나 한 번씩 물건을 훑어갔다.

처음 가게를 정리할 생각을 하자 오랫동안 방치해 놓아 거의 중고품이 된 물건들이 주르륵 스크린처럼 흘러갔다. 한때는 사법시험을 공부하던 수험생들이 선호했던 만년필과 고급 펜들, 비싼 샤프와 원목으로 된 고급형 독서대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해결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풀렸다. 오래된 물건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할인행사를 하니 하나둘 입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특히 만년필에 그런 애호가들이 많았다.

한 달 동안 가게 정리를 하다 보니 마치 어릴 적 시골에서 '둠벙'을 푸던 일과 흡사했다. 둠벙은 갈수기에 논에 물을 대던 용도로 만들어 놓은 웅덩이다. 물을 퍼내는 것은 한마디로 웅덩이를 청소하는 일이다. 쌓인 흙더미나 쓰레기를 걷어내어 물 저장량을 확보하려는 이유였다. 양수기로 물을 푸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개구리와 뱀들이 기어 나와 논 속으로 달아났다. 계속 물을 푸다 보면 벽면의 돌 틈에 숨어 있던 물고기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흐린 물속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보며 그것이 무슨 물고기인지 구별할 수 있었다. 결국 맨 마지막에는 길고 굵은 장어가 느릿느릿 기어 나왔다. 바닥에 오래 쌓인 진흙을 걷어내면 청소는 끝났다.

둠벙 청소 정도로 생각했던 가게 정리가 시간이 갈수록 커다란 보(洑)를 청소하는 것처럼 바뀌었다. 지금까지 평수가 작고 오래 익숙하다 보니 좁다고 착각했었다. 오래된 진흙 펄 같은 먼지 속에 처박혀 있던 물건들, 책장 맨 아래 칸이나 손이 닿지 않은 사각지대에 숨어 있다가 발견되는 것들이 영락없이 오래된 물고기를 생각나게 했다. 물이 빠지니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흘러나오던, 시커멓고 커다란 요물들. 의외로 이런 것들이 봇물을 썩지 않게 지탱하지 않았나 싶었다. 마치 오랜 진흙 펄 속에서 묻혔던 나무가 부처상으로 환생하듯, 매향(埋香)이 되어 연꽃 향기로 날리듯.

다녀간 여자 동창 중 한 명은 어릴 때 또래들보다 조숙했다. 조숙하면 남자아이들이 따랐다. 나이 들어 그런 얘기를 하며 깔깔거리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여자 친구가 마지막에 했던 한마디가 아직 목소리로 맴돌았다.

"일찍 까지거나 늦게 까지거나, 언젠가 한 번, 까지는 것은 마찬가지야!"

돌이켜 보면 향기로운 어린 시절이었다. 나이가 들어도 그 향기는 흩어지지 않는다. 까까머리와 단발머리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걷던 송냇가 둑길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그 길에서 겨울바람을 피해 머리를 숙이고 걸었다. 그 길에서 풋사랑에 애달파 눈물을 지었다. 그 길에서 달뜬 마음을 한껏 노래했다. 그때의 목소리가 송내를 타고 신선바위를 넘어 멀리 천등산 정상 바위에 부딪혀 메아리로 울리곤 했다. 모든 추억은 냇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간다.

이제 다음 주면 가게 폐업 정리가 끝난다. 이 가게라는 공간에서 어릴 적 기억을 추억했듯이 가게에서의 지난 추억들이 이야기로 빛날 것을 믿는다. 그 많던 색상의 제품들이 기억의 장면을 분명 화려한 이야기로 출렁이게 만들 터이다. 그것을 하나하나 바위에 각인하듯 이야기로 바꾸는 작업이 희망으로 기다리고 있다. 공간이 없어져도 기억은 추억이란 에너지로 보존된다.

기 고

광주·전남, 통합은 감정이 아니라 생존이다

차 영 수
전남도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늘 언젠가의 화두였지만, 이번에는 결이 다르다. 1월 2일 공동선언에 이어 1월 5일 통합 추진기획단이 출범하면서 논의가 말에서 조직으로 넘어갔다. 통합이 실제 업무 체계로 잡히기 시작한 이상, 이는 더 이상 '검토'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며, 필자는 이를 반기는 입장에서 통합의 필요를 정리하고자 한다.

통합 논의는 돌연한 의제가 아니다. 1986년 광주 직할시 승격 이후 분리된 체계 아래에서도 통합은 여러 차례 공론화됐고, 이번이 네 번째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분리 이후 생활권은 계속 맞물렸는데, 광역교통·의료·산업 인허가처럼 경계를 넘나드는 사안일수록 조정에 시간이 걸리고 책임이 분산됐다. 반복은 우연이 아니라 행정 이원화가 조정비용과 중복을 누적시켜 왔다는 구조적 신호다.

특히 지금은 미래 전략의 축이 겹친다. 광주와 전남은 공공기관 이전, AI 인프라, 반도체 산단, 에너지 산업 등 국가 단위 사업을 두고 경쟁해 왔다. 권역 내부 경쟁은 결국 인센티브 소모전이 되기 쉽고, 유사한 사업을 각자 따로 설계하는 비효율로 이어진다. 전략은 분절되고 실행은 늦어진다. 통합은 경쟁을 협업으로 바꾸고, 부지·전력·인허가·교통·인재양성을 한 권역의 패키지로 묶어 같은 목표를 따로가 아니라 함께 실행하는 구조로 전환시키는 계기다.

지역소멸의 압력은 더 직접적이다. 전남은 다수 군이 인구감소지역일 정도로 청년 기반이 약하고, 광주·전남 전체로도 20대 순유출 흐름이 두드러진다. 인구가 줄면 학교·교통·돌봄 같은 기본 서비스는 줄이기 어렵고, 1인당 유지비용은 상승한다. 결국 소멸 대응은 '의지'보다 재정과 집행력의 싸움이 된다. 한편 광주는 산업 확장을 위한 공간·환경규제의 제약이 커 미래차 국가산단 예정부지조차 그린벨트 문제에 막혀 왔다. 통합은 광주의 인재·도시형 산업 집적과 전남의 에너지·항만물류·대규모 부지를 결합해 '사람은 있는데 일자리가 부족한 곳'과 '일자리는 만들고 싶은데 사람이 부족한 곳'의 불합치를 완화하는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또 하나의 핵심은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이다. 통합은 권한 이양·재정 특례·기관 배치 원칙을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할 여지를 넓히고, 특별법·특례를 통해 권한과 재원을 함께 끌어오는 협상을 가능하게 만든다.

통합 지방정부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수준의 지원 논의도 여기에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이런 약속은 선언이 아니라 조문으로 잠길 때 비로소 협상력이 된다. 재원과 권한의 한계를 넘어 산업 구조 전환과 공공기관 유치 같은 과제를 '되게 하는' 집행력을 확보하는 길이 열린다.

물론 숙제는 남아 있다. 군공항 이전처럼 상징성이 큰 갈등이 있고, 통합이 손익의 승패로 읽히면 명분은 약해지고 분열은 되돌아온다. 주민 동의 절차와 비용, 통합 이후 균형발전 장치에 대한 불안도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 광주로의 쏠림 우려는 감정이 아니라 설계 항목이며, 기관 분산과 재정 룰로 관리돼야 한다.

그래서 성패는 구호가 아니라 설계에 달려 있다. 부담과 편익을 투명하게 나누는 규칙, 기관 배치·재정 배분 기준, 지역별 서비스 하한선 같은 안전장치가 명문화되지 않으면 통합은 출발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제 앞에서도 필자는 통합을 '우리가 본래 한 덩어리였는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바라본다. 1986년 이후 행정구역은 갈라졌지만, 호남의 위기 대응과 가치 선택은 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1980년 독재 앞에서 광주만이 아니라 전남 각지에서도 분노와 연대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최근 2024년 12월 계엄령 국면에서도 시민들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행정 경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마음까지 달랐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의 통합은 새로운 공동체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다. 이미 여러 위기의 순간에 확인해 온 '같은 편'이라는 감각을 행정과 산업, 생활의 영역에서 다시 한 번 제도화하는 일이다. 이에 물음으로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우리는 단지 행정구역이 달랐을 뿐이지, 마음은 같지 않았느냐고."

社 說

시도 통합 메가시티 탄생, 지역 발전 역사 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해온 시·도 행정통합 현실화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청년 인구 유출 등 지역 소멸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인구 320만의 호남권 메가시티 탄생은 광주·전남 지역 대도약을 견인하는 신호탄임에 틀림없다.

역대 네번째로 추진된 행정통합은 지역 정치권의 결단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 약속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무엇보다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5극 3특' 정책을 국가균형성장 전략으로 삼은 이 대통령이 이번 호남권 통합 모델을 대한민국균형발전의 선도사례로 인정함에 따라 성공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금요일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갖춘 '통합 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선언했다. '광주·전남 대통합 공동 발표문'에서 두 사람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대한민국 제1호 통합 광역 지방 정부'를 출범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또 통합 후에도 현재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거대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시도는 단순한 행정 구역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광주시의 인공지능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역량과 전남도의 재생에너지, 바이오, 우주항공 등 산업과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초 광역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고회에 앞서 시장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18명과 함께 오찬을 한 이 대통령은 통합지자체에 재정·자치 권한 이양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공공기관 이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 힘을 실었다.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조치들도 잇따라 마련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가칭 '광주전남통합특위'를 구성하고 늦어도 15일까지 '광주통합특별시 지원특례법안'을 마련해 2월 중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절호의 기회를 맞은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챙겨야 할 것이 많다. 무엇보다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2월까지가 통합의 성패를 가를 '골든타임'임을 인식,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국회와 협의에 들어가야한다. 시도민 여론 수렴에도 적극 나서야하는데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 찬성 의견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통합의 장점을 홍보,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내는 게 필요하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지역 정가, 국회의원, 시민 등 모두가 지혜를 모아 지역의 대부흥을 견인할 시도 행정통합을 꼭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드러난 '식품 사막' 전남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이 소멸 위기에 내몰린 전남의 열악한 생활 인프라 실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기본소득 사용처가 생활권(읍·면)으로 제한되면서 사용처가 거의 없는 면 단위 지역민들의 경우 지원금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곡성군은 오는 2월 말부터 매월 15만원씩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를 읍·면별로 다르게 적용키로 했다. 곡성읍 거주 주민은 전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오곡·삼기면 등 10개 면 주민들은 읍이 아닌, 면 단위 사용처에서 기본소득을 쓸 수 있게 했다. 다만, 정부 지침을 반영해 병·의원, 약국, 학원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면 주민들도 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곡성은 대부분의 생활 인프라가 읍 지역에 집중된 곳이다. 면 단위로 기본소득용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제한하게 되면 인구 소멸로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면 단위 주민들은 또 다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2년 간의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지역민들 불편을 줄이면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는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無 等 鼓

고대사 통합

옹관(甕棺)은 흙으로 만든 항아리를 이용해 시신을 안치하는 관을 말한다. 흔히 독널로도 부른다. 옹관을 사용하는 매장방식은 토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신석기 시대부터 이어져 왔다. 어린이 시신을 묻거나 성인의 뼈만 골라 옹관에 넣는 방식이다. 일제 강점기 나주 반남고분군에서 시신 매장용 전용 옹관이 처음 발굴됐고 1960년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소아용 옹관 53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옹관은 영산강 유역 일대 마한(馬韓)을 상징하는 묘제다. 타 지역에서는 지배층의 무덤으로 나무나 돌을 이용한 널무덤, 돌덧널무덤, 돌방무덤을 사용했는데, 영산강 유역 일대에서는 유독 흙으로 만든 성인용 옹관이 사용됐다. 길이 2m, 무게 300kg에 달하는 거대한 옹관을 제작해 장례에 사용하는 풍습은 3세기 무렵부터 6세기 중반까지 이어졌다.

5세기 즈음 운영된 나주 오량동 가마터는 옹관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타임캡슐이다. 나지막한 구릉에서 옹관을 생산한 가마 77곳과 공방이 발견됐다. 미조사 가마까지 포함하면 수 백기가 100여년 동안 운영돼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이 옹관 제작 기술을 복원하기도 했는데, 현재 사용하는 옹기의 제작 방법과 유사하다. 점토띠를 만들어 차곡차곡 쌓아올려 가마에서 굽는 방식이다.

전남도가 최근 나주시·영암군과 함께 '마한 옹관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나섰다. 잠정목록 등재를 신청한 유산은 나주 오량동 요지(窯地), 나주 반남고분·복암리고분군, 영암 시종고분군 등 4곳이다. 옹관이 가장 성행했고 두드러진 지역이다. 아쉽게도 전남과 영산강 줄기를 공유하고 있는 광주의 신창동 유적은 빠졌다. 옹관의 맥을 잇고 있음에도 말이다. 물론 고대사와 무관한 행정 경계가 작용하고 있다. 2021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마한역사문화권'에 '전남'만 포함시켰다가 뒤늦게 법을 개정해 광주를 포함시켰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원래 한 뿌리였다는 전제가 바탕이라면 가장 먼저 복원하고 통합해야 할 현안은 광주·전남 고대사가 아닐까.

/윤영기 정치·경제담당 에디터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